열린세상

당선자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두헌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민주주의의 한판 축제가 끝났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외 대형 이슈에 밀려 분위기는 내내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전 국민의 참여 열기 속에 2018지방선거가 마무리 됐다. 후보로 출전해 당선의 기쁨을 누린 사람도, 아쉽게 낙선한 사람도, 그리고 그 주변 가족과 운동원들도 모두 고생했다는 위로를 전하고 싶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칭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투표를 통한 선거 이기 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내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야 말로 '민주주의 꽃중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을 대신해 지역살림을 챙기고 주민들의 실생활을 살피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책임자를 선출하는 풀뿌리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기력으로 인해 다소 맥빠진 선거가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주민 눈높이에서 미래 설계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유권자를 무시하는 밀어부치기식 오만과 독선이 없지 않았으며, 중앙당 고위인사의 자기 사람 심기식 공천이 논란을 빚는 등 적지 않은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거센 '문재인바람'을 등에 업고도 고배를 마시는 등 민심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대승을 거뒀으며, 광주전남에서도 모든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들이 민주당의 뛰어난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착각 한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이 정말 잘 해서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남북·북미정상 회담에서 불어온 평화의 바람이 작용한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겸손한 자세로 민의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낮은 자세로 받들지 않으면 곧바로 '민심의 정'을 맞는다는 진리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다수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은 이제부터 4년동안 지역의 대표로써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신성하고 중대한 책임을 진다. 자신에게 향한 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단순히 나와 주변을 위한 벼슬(?)을 얻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다면 그 순간부터 본인과 지역의 불행이 지역된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 아울러 그를 도왔던 사람들 또한 댓가(?)를 바라고자 한다면 안된다. 이 또한 자신의 인생은 물론 자신이 지지한 당선자의 인생까지 망친다는 점을 깊히 인식 해야 한다.

어쨌든 이제 당선자들은 취임전 까지 앞으로의 임기 4년을 설계 해야 한다. 단체장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현안을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시급히 고민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민선6기 동안 지속돼온 사업들을 점검해 보고 좋은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꾸고 조정해야 한다. 간혹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 전임자의 사업들을 무조건 폄훼하거나 지우려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진행중인 사업들을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시키거나 중단 하므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방의원들 지역현안 공부하길

전임자의 사업들이라도 좋은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 훌륭하게 마무리 짓는다면 지역민의 지지는 전임자가 아닌 자신에게 온다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 또한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하고 시작 할 것을 권하고 싶다. 철저한 예산대책이나 경제적 검증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 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당선자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뱃지의 우쭐감'에 취하지 말고 주민편에 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진정한 지방의원이 되라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들여다보고 주민의 생각을 묻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권위의식에 차 엉뚱한 질문이나 해대는 그런 의원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기고

맛의 고향 광주를 추억하며

주종대
밝은안과 21 원장

필자가 어릴 적 광주의 중심에는 도청이 있었고 주요 관공서가 그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금남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수십 년에 걸쳐 각양각색의 재료를 이용해 맛깔나게 음식을 만드는 전통 있는 음식점들도 즐비해 있었다.

전라도식 한정식, 탕 전문 요리 집, 일식당, 고기전문 구이점, 그리고 양동과 대인시장 주변의 국밥 집 등등….

매일 아침이면 각 식당마다 찬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을 식당 앞에 펼쳐 놓고 손질하는 어머님들의 모습과 주방에서는 무치고 양념하고 볶느라 바쁜 음식 장인들의 손놀림을 보며 학교에 가고는 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광주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제철 농산물들이라 특히 신선했을 뿐 아니라 맛의 풍미를 더해 줄 음식장인들에 의해서 맛깔스러운 문화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풍부한 식재료, 바로 조리해서 나올 수 있는 신선함 그리고 맛의 장인들이 있어서 광주의 음식문화를 꽃 피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추억 속의 이야기이다.

나는 한번 씩 광주를 찾는 이들이 광주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고 물어 볼 때 면 솔직히 대답할 것이 없어 한참을 고민한다.

맛의 고장이라 하지만 타 지방과 비교해서 독창적이거나 탁월하거나 혹은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트렌드 그리고 인적자원이나 시장을 성숙시킬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까지 광주를 지키던 맛의 장인들은 도청이전 그리고 동구 도심의 몰락과 함께 맛집을 유지 할 수 있는 동력을 잃고 사라졌고 음식의 장인들도 그들과 함께 사라져갔다.

단순히 음식문화만 퇴화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의 자랑인 남도음악, 한국 춤, 남화 등의 예술도 함께 후퇴해버린 것 같다.

예향 광주. 옛 부터 예술을 즐기고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내 고향 광주.

광주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 자문해본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비극적인 한국의 남서쪽에 있는 저항과 민주의 도시.

나는 광주가 문화와 예술이 꽃피우고 맛있는 음식의 미각여행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우리 광주 인들의 예술 감각과 뛰어난 미각으로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태리 사람들이 피렌체에서 시작해 르네상스라는 예술적 문화를 꽃피워 해마다 수백만 명이 그 곳을 찾게 히는 예술적 유산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곧 그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됐다.

지금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그들이 무한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며 맛의 장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로만 조리해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광주 미식 문화를 육성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맛의 장인들을 길러내고 그들의 맛 집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은 지원하고 지역민들은 성원해야한다.

도시의 상징을 만들어 회색빛 도시에서 자연 친화적 도시 형태로 바꾸며 광주가 전통 있는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구조의 개념에서 문화, 예술 그리고 미식기행으로 어우러지는 광주의 새로운 모습은 예향광주, 그리고 추억이 되어버린 맛의 고장 광주를 다시금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고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활용 효과 커

송명준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순경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 경도 인지장애환자는 전국에 15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22.4%에 이르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2020년에는 84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노인 실종신고 또한 2013년 7,983건, 2015년 9,046건, 2017년 1만 306건으로 5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치매노인들은 외관상 특이사항이 없고 상대적으로 지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종이 되면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받기 힘들고 그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자칫 저체온증이나 교통사고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전북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한 하천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다.

치매 노인 박씨가 지난 15일 병원에 가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6일만에 찾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독 많은 눈이 내린 지난 1월 12일, 집을 나선 노인이 이틀만에 인근에 있던 친언니 무덤과 가까운 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박 모씨(79·여)가 집을 나선 뒤 집을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며 행방을 찾아 나선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차갑게 굳고, 2㎝가량 눈에 덮여있었다고 알려졌다. 박씨가 실종신고 만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된 장소는 친언니 무덤과 가까운 곳이었다.

이같은 사건들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 사전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치매노인실종의 사전예방책으로 전국 지·파출소에 방문해 치매노인 사전등록 서비스를 입력해두면 실종된 치매노인 발견 시 사전에 등록된 지문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등록된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간 협약이 이루어져, 5개 자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 기관으로 치매예방교육, 조기검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문사전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자영업자 어려움 간과할 일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저임금과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다 대출금리까지 상승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이 살아나야 서민 경제도 향상될 터인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광주지역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모두 15만6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 1만6천명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자영업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니 걱정이다.

자영업 취업자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밑바닥 경기가 그다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크다. 하지만 올 들어 최저임금 등 인건비가 크게 오른 이유를 배제키 어렵다. 인건비가 오르니 장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여기에 각종 농·수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시중 금융권의 대출금리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연 5%에 이르는 등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은 서민 등 밑바닥 경제의 바로미터나 다름 아니다. 자영업 침체와 종사자 수가 격감하고 있는 점을 결코 간단히 봐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와 당국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조사 분석,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올해도 쌀 과잉공급 걱정 앞선다

올해의 쌀 공급을 놓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쌀의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지만 생산량 감소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자칫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쌀 예측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올해 쌀 과잉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벼 재배의향 면적이 지난해 75만5천ha에 비해 겨우 4.7% 줄어들었다. 반면 시장 공급량은 전년 301만여t보다 12만t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국내 쌀의 수요가 공급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은 최대 2.3% 감소한 301만여t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재배한 쌀의 예상 공급량보다 최대 12만t 적은 수치다. 올해산 쌀 수만여 t이 남는다는 의미와 같다. 공급과잉 우려를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생산면적이 줄어들어도 시장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생산량 감소가 큰 의미가 없는 탓이다. 즉 정부의 순 매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재배 쌀의 시장 공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쌀 대량 매입이 이뤄져야만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쌀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 폭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 예측대로라면 올해도 기상이변 같은 변수가 없는 한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 방출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가격 불안정을 막아야 마땅하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사장·발행·편집인 金善男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 제보 (062)720-1050~56	사회2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 인쇄
FAX (062)720-1080~82	문화부 (062)720-1071	
논설실 (062)720-1032	전산팀 (062)720-1033	E-mail=jndn@chol.com
정치부 (062)720-1060~62	사진부 (062)720-1040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7	
사회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

독자광장

운전자 시야 가리는 가로수 정비 시급

여름철을 앞두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로 교통 불편을 주고 있다.

전국의 도시와 국도주변에 식재된 상당수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제때 관리되지 않으면서 이정표는 물론, 신호등까지 가리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하지만 가로수 관리 규정에는 가지치기의 시기가 명문화돼 있다.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가을, 겨울철 휴면기에 가지치기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새싹이 나기 전인 3월 중하순까지 가지치기 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가 가로수 잎이 무성해진 뒤에야 가지치기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로수 정비목적은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상가간판가림, 보행자 통행 불편 등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국토유지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도 가로수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애로가 많다. 운전자의 안전 등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가로수 정비가 시급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